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제주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11월 9일 -



제주특별자치도
농 업 기 술 원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감귤, 토양따라 맞춤 시비 필요-p96(2026.11.01.)	친환경연구과	농경과 원예
○	양배추·브로콜리 병해 예찰 및 초기 방제 필요-p96(2026.11.01.)	제주농업기술센터	농경과 원예
○	기후변화 대응과 데이터·AI 농업으로 -p52~53(2026.11.01.)	총무과	친환경
○	해충을 읽는 AI, 제주 농업의 골든타임을 지키다-p50~51(2026.11.01.)	농업디지털센터	지방정부
○	제주감귤박람회, 11월 19일 개막…감귤의 미래 선보인다!-5면(2026.11.01.)	기술지원조정과	한국4-H 신문
○	제주시4-H연합회, 청년농업인 농산물 홍보 및 '메밀 런' 행사 열어-5면(2026.11.01.)	제주농업기술센터	한국4-H 신문
○	태풍 영향, 제주에 400mm 넘는 큰비… 감귤 등 피해-5면(2026.11.02.)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신문
○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제주 농촌지도자가 만든다" -7면(2026.11.02.)	기술지원조정과	농업인 신문
○	[기고] 제주농업의 땀과 정성으로 세계를 맞이하자-15면(한국농촌지도자 제주시연합회장 이석근)	-	농업인 신문
○	겨울무·감귤 이어 키위도 육성-7면 (2026.11.02.)	-	농민신문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2면 (2026.11.04.)	기술지원조정과	서귀포 신문
○	농업농촌소식-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8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13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출하량 증가·잦은 비에 감귤 값 '뚝' -1면	-	제민일보
○	"감귤 값 후려치기 막아야" -2면	-	제민일보
○	제주산 마늘 간편식 전국 급식·외식 겨냥-6면	-	제민일보
○	FTA기금으로 내년부터 스마트팜 지원-6면	-	한라일보
○	감귤농협 이어 조천농협 노지감귤 수출 본격-12면	-	한라일보

(농경과원예: 2026년 11월 1일)

○ 감귤, 토양따라 맞춤 시비 필요-p96

감귤, 토양따라 맞춤 시비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올해 도내 감귤원 88곳의 토양화학성을 조사하고 필지별 토양검정에 따른 적정 시비를 당부했다.

조사지 88곳의 평균 토양산도(pH)는 지속적인 토양 개선 활동으로 화산회토 5.2, 비화산회토 5.6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며, 비화산회토는 적정범위인 5.5~6.5에 들어섰다. 유기물 함량은 두 토양 모두 적정 수준이었고, 유효인산은 화산회토가 적정범위에 들었지만 비화산회토는 여전히 높았다. 화산회토는 칼륨 · 칼슘 · 마그네슘이 모두 부족한 반면, 비화산회토는 칼슘 · 마그네슘은 적정하고 칼륨은 다소 많았다.

이들 양분은 감귤 생육과 과실 품질에 영향을 주며, 특정 양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다른 양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 농업기술원은 비료 사용 전 토양검정을 통해 부족한 양분은 보충하고, 충분하거나 넘치는 양분은 투입량을 줄일 것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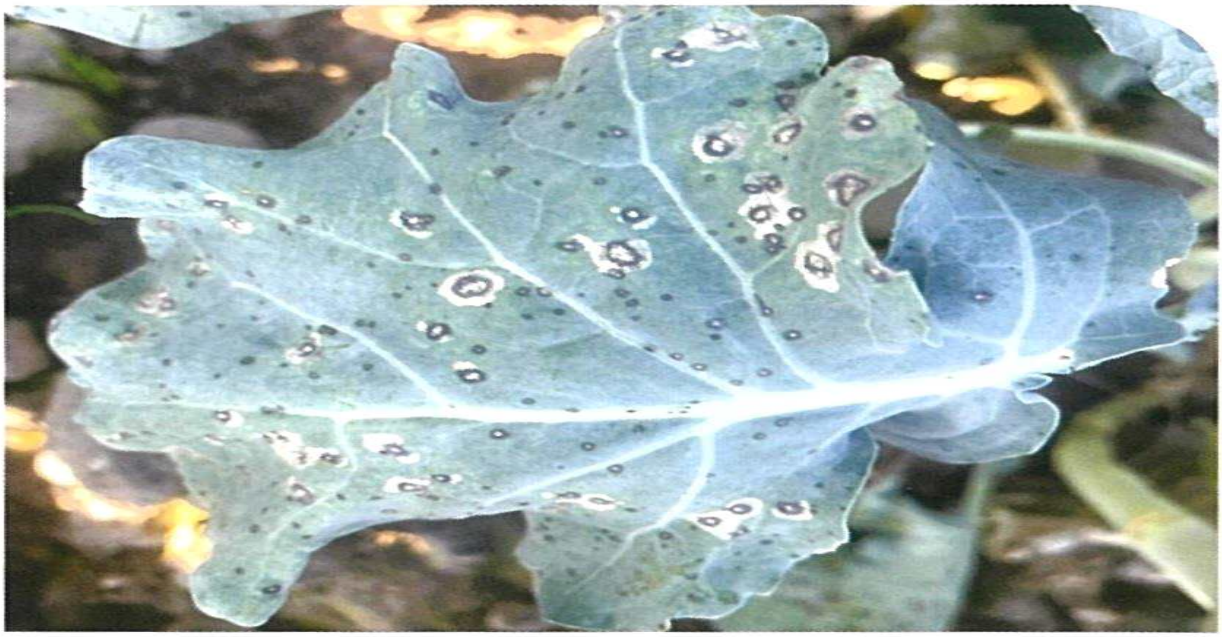
특히 인산 · 칼륨이 많은 감귤원은 퇴비 속 양분까지 고려하고, 산도가 낮은 곳은 칼슘 · 마그네슘 함량에 맞춰 토양을 개량해야 한다.

농경과원예
11월호 96

(농경과원예: 2026년 11월 1일)

○ 양배추・브로콜리 병해 예찰 및 초기 방제 필요-p96

양배추·브로콜리 병해 예찰 및 초기 방제 필요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허영길)는 양배추 · 브로콜리 재배 농가에 병해 예찰과 초기 방제를 당부했다.

올해 10월 중순까지 제주지역 평균기온은 21.5℃로 평년보다 2.9℃ 높았으며, 이후에도 흐리고 비 오는 날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습도가 높고 잎이 오래 젖어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검은무늬병과 검은썩음병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곰팡이성 병해인 검은무늬병은 잎과 잎자루 · 줄기 등에 갈색이나 검은색의 원형 · 타원형 반점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세균성 병해인 검은썩음병은 잎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하고 잎맥을 따라 안쪽으로 브이(V)자 모양의 증상이 퍼진다. 농가는 잎의 반점과 가장자리 색 변화를 자주 살피고, 병 발생 초기 해당 작물과 병해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약제 사용 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배수로를 정비해 토양이 지나치게 습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병든 식물체를 제거해 주변으로 병이 확산하는 것을 줄이는 등 재배환경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농경과원예
11월호 96

(친환경: 2026년 11월 1일)

○ 기후변화 대응과 데이터·AI 농업으로-p52~53



기후변화 대응과 데이터·AI 농업으로 제주농업의 미래 연다! 김태균 제주도농업기술원장

"기후가 변했으니 품종도, 농업의 방식도 변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제주농업이 디지털·친환경기술을 무기로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데이터 기반의 영농 예측 시스템 구축과 현장 맞춤형 신품종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과 생태적 전환을 동시에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김태균 원장의 청사진을 들어본다. 이경민 기자

Q1. 취임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핵심 정책은

A1. 현재 농업·농촌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시장 개방 확대, 농업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다각도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장 중심의 실용·혁신 기술 개발과 보급을 목표로 4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입니다. 첫째, 제주농업의 디지털 대전환과 스마트농업 보급을 통한 미래농업 육성입니다. 둘째, 저탄소 실용 농업기술과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셋째, 농작업 안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농업인력 육성과 새로운 농업 가치 확산, 소득작목 발굴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Q2.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제주농업의 디지털 전환 구상은

A2. 제주는 기후변화를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지역입니다. 연평균 기온 상승과 폭염, 열대야 일수 증가로 레드향 열과, 마늘 2차 생장, 콩 녹체 현상 등 작물 생육 피해와 농가소득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배기술 개편을 넘어 품종과 재배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우선 제주 기후에 적합한 품종을 육성해 현장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설재배용 만감류인 '달코리', '우리향' 등 6개 품종은 열과에 강하고 당도가 높아 현재 67ha에 보급되었으며, 폭염에 잘 견디는 콩 '해찬', 여름 재배용 쪽파 '하영금파', 병 저항성 조생종 브로콜리, 2차 생장이 적은 마늘 등을 개발·보급 중입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영농 현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Data와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축한 '제주 DA(Digital Agriculture) 플랫폼'은 토양검정, 병해충, 기상, 도매시장 가격, 농업경영체 등 흩어져 있던 농업데이터를 한데 모은 통합시스템입니다. 34종 데이터 기반 토양·병해충·관측 정보 및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1단계 서비스에 이어, 수집 데이터를 40여 종으로 확대하고 AI 음성 영농일지 작성 및 경영 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3단계(2027~2029)에서는 기후적응형 품종 연구와 데이터 기반의 정밀 농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농가 영농 편의성과 농업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습니다.

Q3.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A3. 청년 농업인 육성은 제주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년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역량 강화교육부터 영농정착까지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교육, 멘토·멘티 현장실습, 청년농업인 학교를 통해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CEO 양성과정과 스터디그룹으로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R&D 성과의 현장 적용을 돕고,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해 실제 농업경영체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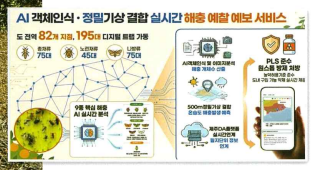
Q4. 치유농업의 발전 가능성과 추진 계획은

A4. 농업·농촌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치유와 체험, 교육, 관광이 어우러진 고부가가치 공간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치유농업은 농촌 고령화와 사회적 기능 확대 측면에서 제주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치유농장을 기존 27개소에서 29개소로 확대하고, 치유농업 서비스 보급과 품질인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치유농업이 한꺼번에 대형화되기보다는 지역과 농가 특성에 맞게 소규모·지역화된 형태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유농업사와 농업전문가 교육, 인증시설 확대 등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인재와 기반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지방정부: 2026년 11월 1일)

○ 해충을 읽는 AI, 제주농업의 골든타임을 지키다-p50~51





해충을 읽는 AI, 제주 농업의 골든타임을 지키다

취재 한승구 기자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영상 MBC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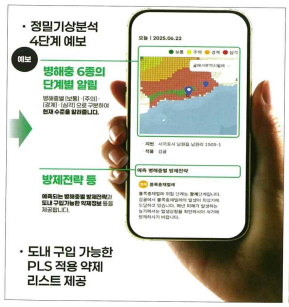
현장의 경험과 디지털트랩 결합… 농지별 예보부터 방제까지

기후변화로 돌발·외래해충이 늘어나는 제주에서 병해충 대응의 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현장 전문가의 판단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감시체계를 구축해 해충을 발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줄였다. 발생 상황을 알리는 데서 나아가 농지별 위험도와 방제 방법까지 안내하며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돕는다. 이 성과로 지난 9월 제31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제주도 디지털트랩

2주 걸리던 정보 갱신, 하루 한 차례로

제주 전역 노지 감귤원과 밭작물 재배지 82개 지점에는 디지털트랩 195대가 설치돼 있다. 포획된 해충의 이미지를 AI가 분석하고, 수집한 정보를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 플랫폼 '제주DA'에 축적하는 방식이다. 현장 조사부터 자료 집계·분석, 정보 갱신까지 약 2주가 걸렸던 수기 중심 예찰은 하루 한 차례 자동 갱신 체계로 바뀌었다. 조사자의 현장 관찰과 디지털트랩 자료를 함께 활용해 예찰의 공백을 줄이고 대응 시점을 앞당긴다.





전문가의 판단이 새로운 해충 대응으로

핵심은 이미 학습한 해충만 알아보던 AI의 한계를 현장 전문가의 경험으로 보완한 데 있다. 새로운 해충 이미지에 전문가가 종류와 위치 등의 정보를 표시하면 이를 AI 학습자료로 축적하고, 새로운 식별모델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다. AI가 스스로 모든 해충을 학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의 판별·검증을 학습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토마토뿔나방·도둑나방·양배추은무늬밤나방 등 신규 해충 3종의 식별모델을 단기간에 개발했다. 현장 판단이 쌓일수록 새 해충에 대응할 기반도 두터워진다.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지 않고도 대응 대상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이 크다.

내 농지의 위험도와 쓸 수 있는 약제까지

수집된 자료는 500m 간격의 정밀 기상정보와 결합해 '보통-주의-경고-심각'의 4단계 위험도 예보로 제공된다. 농업인은 제주DA 앱에서 자신의 농지에 맞는 방제전략과 적용 가능한 약제를 확인할 수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기준으로 약제 정보를 안내하고 사용 이력과 도내 구매 가능 정보도 반영해 안전한 방제를 돕는다. 9월 보도자료 기준으로 2,130명의 농업인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현장 전문가의 경험과 판단을 자료로 축적하고 이를 다시 인공지능 학습과 병해충 대응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히며 "'제주DA'를 농업인과 행정, 연구 현장을 연결하는 기반으로 발전시켜 제주형 농업 인공지능 전환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064-760-7274

PS 지금 이도시는

제주는 병해충을 관찰하는 디지털 전환에서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농업 인공지능 전환으로 나아가고 있다. 축적된 예찰자료로 예보모델을 고도화하고, 현장의 경험이 다시 농업인의 적기 방제를 돕는 지식으로 돌아오도록 한다. 기술의 초점은 농업인의 대응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제주형 스마트농업의 핵심이다.

(한국4-H신문: 2026년 11월 1일)

○ 제주감귤박람회, 11월 19일 개막…감귤의 미래 선보인다!-5면

제주감귤박람회, 11월 19일 개막…감귤의 미래 선보인다!

제주 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2026 제주감귤박람회'가 오는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제주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생태원 일원에서 열린다.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고문삼)는 '감귤을 품은 제주! 미래를 여는 제주!'를 주제로 스마트농업과 감귤 가공산업 등 제주 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박람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농업 기술과 고품질 감귤 생산기술을 비롯해 감귤 가공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학술행사와 수출상담회,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관람객을 위한 문화공연과 감귤 직거래장,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된다.



사진은 '2025년 제주감귤박람회' 모습.

고문삼 조직위원장은 "제주 감귤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감귤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시하겠다"며, "많은 국민과 관광객이 제주를 찾아 감귤의 맛과 향을 즐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1. 1.
정호주 기자 skyzoo7
한국4-H신문 5

(한국4-H신문: 2026년 11월 1일)

○ 제주시4-H연합회, 청년농업인 농산물 홍보 및 '메밀 런' 행사 열어-5면

제주시4-H연합회, 청년농업인 농산물 홍보 및 '메밀 런' 행사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4-H연합회(회장 양원석)는 지난 9월 26일 오라메밀꽃축제장에서 회원 및 참가자 50명이 함께한 가운데 '청년농업인 전시홍보 및 메밀 런' 행사를 열었다.〈사진〉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을 홍보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날 제주시4-H연합회 회원들은 농산물 가공제품을 전시·홍보하며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청년농업인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트레일 러닝 대회 한국신기록 보유자인 고민철 제주시4-H연합회 감사의 달리기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한 후, 참가자들이 메밀꽃밭을 따라 약 3km를 함께 달리는 '메밀 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양원석 제주시4-H연합회장은 "이번 행사가 청년농업인들의 활동을 알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청년농업인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1. 1.
김민지 청년농부기자 · 제주도
한국4-H신문 5

(농업인신문: 2026년 11월 2일)

○ 태풍 영향, 제주에 400mm 넘는 큰비…감귤 등 피해-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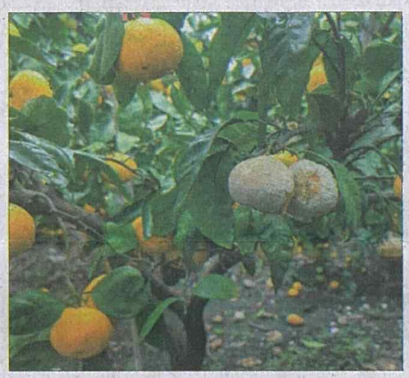
태풍 영향, 제주에 400㎜ 넘는 큰비…감귤 등 피해

제30호 태풍 '참피'의 영향으로 제주와 영남 남동부, 전남 남부 등지에 큰비가 내렸다. 특히 제주지역은 400㎜가 넘는 비가 와 감귤 등 농작물 습해 우려가 크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제주지역 누적 강수량은 삼각봉 415.5㎜, 진달래밭 370.5㎜, 성판악 366.0㎜, 산천단 364.0㎜를 포함해 제주 214.4㎜, 서귀포 161.4㎜ 등이었다.

영남지역의 경우 경주 토함산 182.5㎜, 부산 기장 166.5㎜, 거제 명사 157.5㎜, 양산 123.3㎜를 비롯해 부산 147.7㎜, 울산 137.8㎜, 경남 창원 111.0㎜였다. 전남은 여수 거문도 136.5㎜ 등 남부 해안에 집중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18시부로 제주도와 전남광주, 부산, 울산, 경남 등 남해안 지역 풍수해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는 한편 현장관리관을 추가 파견하고 취약 시설물 집중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태풍 영향으로 비가 잦았던 제주지역의 감귤 습해 우려가 크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열매가 나무에 달린 상태로 썩는 수부증 방제와 수확 후 철저한 선별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서귀포지역에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아흐레간 비가 이어지면서 극조생 감귤 수확이 지연되고 있고, 과실이 나무에 달린 상태에서 썩는 수부증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유통센터에 입고된 극조생 감귤 중 일부가 입고 후 이틀 만에 약 30%가 부패했으며, 선별 후 내륙 유통과정에서도 4~5%의 추가 부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원은 비가 그친 후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저장병 방제 약제를 제때 살포하고, 수확한 과실은 충분한 예조 후 썩은 과실을 제거하는 등 철저한 선별을 거쳐 출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조는 저장성 향상을 위해 수확한 열매를 가볍게 건조해 수분 함량을 낮추는 것으로, 수확 후 2~3일간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하면 된다.

백종수 bjsoo@n

11. 2. 농업인신문 5

(농업인신문: 2026년 11월 2일)

○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제주 농촌지도자가 만든다" -7면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제주 농촌지도자가 만든다"

'2026 제주 회원대회' 개최…회원 700명 한자리에

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회원 700여 명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실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2026 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 회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8일 제주시 남원생활체육관에서 '천년 보는 농업! 만년 웃는 농촌!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이창흡 제주도기후경제부지사, 강충룡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위원장, 김태균 제주도농업기술원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회원들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회원 표창 시상 및 축하식을 비롯해 농업인 실천 결의문 낭독, 회원 단합행사 등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회원에게 도지사표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등 총 15점의 표창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실천 결의문을 낭독했다. 회원들은 ▲친환경 영농과 자원순환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농업 실천 ▲과학영농·스마트농업 확산 ▲제주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권익 증진 ▲청년·후계농 육성과 영농 기반 조성 ▲회원 간 화합과 협력을 통한 농업·농촌 발전 등을 다짐했다.

송응준 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기후 위기와 농촌 고령화, 농업 경영비 상승 등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자의 선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회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농업과 친환경농업 등 미래농업의 변화와 함께 나아가며 농업·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달 26일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업예산을 국가 재정 대비 5% 수준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농업·농촌을 살리겠다는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농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연합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 회원대회가 제주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농촌지도자 회원 간의 화합과 결속을 더욱 굳건히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은 kkj129@nongupin.co.kr





수상자 명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농업농촌발전 공로 ▲서귀포시 남원읍회 현기원
농촌지도자회 발전 공로 ▲서귀포시 김태준
2026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성과 공로 ▲제주시 한경면회 이경남
농촌진흥청장 표창 ▲제주도 김호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제주시 서부지회 고유진 ▲서귀포시 대정읍회 양창선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표창 ▲제주시 애월읍회 고정숙 ▲서귀포시 대천지회 오흥식
농어촌공사 사장 표창 ▲제주도 김문필 ▲제주시 노미라
농협중앙회장 표창 ▲제주도 강정숙 ▲서귀포시 남원읍회 이현호
농촌지도자연합회장 표창 ▲제주시 구좌읍회 김승돈 ▲서귀포시 중부지회 [illegible] 공로패 ▲서귀포시 남[illegible]

11. 2. 농업인신문 7

(농업인신문: 2026년 11월 2일)

○ [기고] 제주 농업의 땀과 정성으로 세계를 맞이하자-15면

제주 농업의 땀과 정성으로 세계를 맞이하자

기고



이석근

한국농촌지도자
제주시연합회장

새벽이 밝아오면 제주 농업인은 밭으로 향한다. 거센 바람에 흔들린 나무를 살피고, 귤잎에 맺힌 이슬을 털며 하루를 시작한다. 돌하나를 골라내고 묘목 한 그루를 심는 일에는 가족의 생계와 고향의 내일이 함께 담겨 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간절한 꿈 하나를 품는다. 2028년 G20 정상회의가 제주에서 열려, 우리가 지켜온 이 땅의 가치가 세계인의 마음에 닿는 꿈이다.

제주는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쌓아온 섬이다. 정상회담과 국제회의를 치러온 경험, 회의·숙박시설과 관광 기반, 평화의 섬이 지닌 상징성은 제주의 소중한 자산이다. 여기에 손님을 귀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도민의 마음이 더해진다면, 제주만의 품격 있는 정상회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나는 세계의 정상들이 제주의 풍경과 함께 그 풍경을 지켜온 사람들의 삶도 만나기를 바란다.

검은 돌담 너머의 감귤밭, 겨울바람을 견디는 푸른 채소, 바다와 목장에서 길러낸 먹거리에는 제주 농어업인의 부지런한 손길이 배어 있다. 오늘의 아름다운 제주는 그 손길이 오랜 세월 가꾸어온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와 식량 문제를 논의하는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제주 농업은 살아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다. 가뭄 앞에서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알고, 폭우와 강풍 속에서 수확의 무게를 아는 농업인의 경험에는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지혜가 담겨 있다. 세계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에,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촌을 지켜온 사람들의 목소리도 함께 닿기를 소망한다. 정상회의가 제주에서 열린다면 공식 만찬과 환영 행사의 식탁부터 제주 농수축산물의 가치를 담아내자. 감귤 한 알에도 생산자의 정성과 재배 이야기를 곁들이고, 기념품에도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담자. 철저한 품질·위생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을 준비해, 제주 먹거리에 대한 신뢰가 행사 이후의 소비와 수출 상담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 농업인이 바라는 것은 오래도록 이어질 인연이다. 제주에서 맛본 감귤이 좋아 다시 찾고, 제주 농촌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여 우리 농산물을 선택하는 인연이다. 그 인연이 쌓일 때 농가에는 새로운 판로가 열리고, 청년에게는 농촌에서 미래를 꿈꿀 힘이 생길 것이다. 유치를 향한 열망만큼 준비도 치밀해야 한다. 공항과 교통, 숙박, 경호와 안전, 의료와 통역 등 분야별 과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주민의 불편을 줄이는 대책과 함께 지역 농어업인·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급·조달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정상회의의 성과가 마을과 골목, 농가의 살림에까지 닿도록 지금부터 길을 열어야 한다. 우리 농촌지도자들도 그 준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안전한 농작업과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일,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 제주를 찾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는 일부터 성실히 실천하겠다. 각자의 자리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모여 제주 유치의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 제주에는 어려울 때 서로 일손을 보태온 수눌음의 정신이 있다. 이제 그 마음으로 도민의 뜻을 모으고 국민의 응원을 구하자. 제주가 가진 강점을 자신 있게 알리며, 부족한 부분은 함께 채워나가자.

나는 2028년, 세계의 정상들이 제주에서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그 식탁에 우리 농업인이 정성껏 키운 먹거리가 오르고, 제주를 떠나는 손님들의 기억 속에 이 땅의 사람들 따뜻한 마음이 남기를 바란다. 농업인의 굽은 등 위에 쌓인 세월과 거친 손바닥에 밴 노력이 세계와 만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제주의 정낭을 활짝 열고, 농업인의 땀과 도민의 정성으로 세계를 맞이하자. 2028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

11. 2.
농업인신문 15

(농민신문: 2026년 11월 2일)

○ 겨울무・감귤 이어 키위도 육성-7면



제주 서귀포 성산일출봉농협 박명종 조합장(가운데), 김미정 농산물산지유통센터장(왼쪽) 등이 성산읍 수산리의 한 시설하우스에서 '감황' 키위 생육을 살피고 있다.

경제사업 1등 비결 ⑩박명종 제주 서귀포 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

겨울무·감귤 이어 키위도 육성

신소득작목 보급… 판매량 증가
작년 경제사업 취급액 1831억

제주 서귀포 성산일출봉농협(조합장 박명종)은 지난해 경제사업 취급액 1831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1499억원) 대비 22.1% 뛰었다. 성장의 배경엔 신소득작목 육성이 자리한다.

박명종 조합장은 "2020년 서귀포시와 협력해 '성산지역 키위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며 "겨울무 주산지로서 경제사업이 탄탄한 가운데 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키위를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가에 보급한 키위 품종은 '감황'으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골드계열이다. 박 조합장은 "10월 상중순 수확하는 조생종으로서 과즙이 풍부하고 평균 당도가 18브릭스(Brix)로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성산일출봉농협은 2023년 특화단지에서 생산한 '감황' 키위를 시중에 처음 선보였다. 그해 판매량은 3t 이었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218t에 달했다. 박 조합장은 "올해는 300t 이상을 시장에 출하할 예정"이라면서 "최근엔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키위 선별기를 새로 도입해 상품화작업 효율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성산일출봉농협은 경제사업 미래[illegible] 시설 구축에도 열심이다. 농협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돼 내년 상반기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새 출하조절시설엔 농산물 저온저장고, 무 세척장, 선별·출하 작업장 등이 들어선다. 박 조합장은 "계획대로라면 2028년 시설 구축이 완료된다"며 "겨울무 품질관리와 수급조절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산일출봉농협은 겨울무·감귤·키위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난해 농협경제지주에서 '2024년 수출 100만불 달성탑'을 받았다. 이런 성과가 두루 쌓이면서 올 3월엔 '2025 농협 농업경제사업대상'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박 조합장은 "농민이 농사로 소득을 올리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농협이 걸어야 할 길"이라면서 "앞으로도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심재웅 기자

11. 2.
농민신문 7

(서귀포신문: 2026년 11월 4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2면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

추진개요

○ 기　간: 2026. 11. 19.(목) ~ 11. 23.(월) / 5일간

○ 장　소: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 행사성격: 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 산업·학술·문화·체험형 융복합 박람회

주요프로그램

○ 공식행사: 개막식, 폐막식, 술 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 학술: 감귤학회, 신품종 강연, 바이어상담회, 온실가스감축사업 설명회, 라이브커머스

○ 경연행사: 청년농업인혁신사례발표, 어린이사생대회, 감귤디저트 경연

○ 문화·공연: 귤빛가요제, 열린무대, 귤빛버스킹

○ 체험행사: 감귤따기, 감귤청·잼 만들기, 감귤꽃이 피었습니다. 감귤젠가 등

○ 빅 이벤트: "감귤왓! No.1 감귤을 찾아라" - 감귤품장 경품 체험

입장권안내

○ 현장구매: 2,000원　○ 사전예약 및 제주도민: 1,000원

○ 무료입장: 국가(독립)유공자, 만 13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른 등

문의

○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2-3091)

○ 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국(732-3380)

11. 4.
서귀포신문 2

(제주일보: 2026년 11월 9일)

○ 농업농촌소식-9면

■ 농업농촌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노지감귤

△수확 7~15일 전까지 부패방지제(저장병약) 살포(농약별 안전사용기준 준수)

※ 비가 내릴 경우 3일 이상 건조 후 수확하며, 수확 후 3일 정도 예조

△가을비료=11월 중하순까지 1년 총 시비량의 20% 내외 시비

※ 극조생 수확 직후, 조생은 수확 직전

▲만감류

△온도관리=외기온도로 관리하며 환기 철저

※ 주간·야간 온도차가 크면 과일에 이슬이 맺히면서 부피과 등 발생 가능성 높음

△물관리=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관수량 조절

- 수확 1달 전까지 10~15일 간격으로 5~10톤/10a 기준

11. 9.
제주일보 9

(제주매일: 2026년 11월 9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8면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

□ 추진개요

○ 기　간: 2026. 11. 19.(목) ~ 11. 23.(월) / 5일간

○ 장　소: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 참가인원: 6.5만 명 내외

○ 행사성격: 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 산업·학술·문화·체험형 융복합 박람회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 주요프로그램

○ 공식행사: 개막식, 폐막식, 술 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 학술·비즈니스: 감귤학회, 신품종 감귤 강연, 바이어상담회, 농업부분 온실가스감축사업 설명회, 라이브커머스

○ 경연행사: 청년농업인혁신사례발표, 어린이사생대회, 감귤디저트 경연

○ 문화·공연: 귤빛가요제, 열린무대, 귤빛버스킹

○ 체험행사: 감귤따기, 감귤청·잼 만들기, 감귤꽃이 피었습니다. 감귤젠가 등

○ 빅 이벤트: "감귤왓! No.1 감귤을 찾아라" - 감귤품장 경품 체험

□ 입장권안내

○ 현장구매: 2,000원

○ 사전예약 및 제주도민: 1,000원

○ 무료입장: 국가(독립)유공자, 만 13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른 등

□ 문의

○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2-3091)

○ 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국(732-3380)

11. 9.
제주매일 8

(삼다일보: 2026년 11월 9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13면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기간=11월 19일(목)~23일(월)/5일간

▲장소=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참가 인원=6만5000명 내외

▲행사성격=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 산업·학술·문화·체험형 융복합 박람회

▲주최/주관=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주요 프로그램

△공식 행사=개막식, 폐막식, 술 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학술·비즈니스=감귤학회, 신품종 감귤 강연, 바이어상담회, 농업부분 온실가스감축사업 설명회, 라이브커머스

△경연 행사=청년농업인혁신사례발표, 어린이사생대회, 감귤디저트 경연

△문화·공연=귤빛가요제, 열린무대, 귤빛버스킹

△체험행사=감귤따기, 감귤청·잼 만들기, 감귤꽃이 피었습니다. 감귤젠가 등

△빅 이벤트='감귤왓! No.1 감귤을 찾아라'-감귤품장 경품 체험

▲입장권 안내

△현장 구매=2000원

△사전예약 및 제주도민=1000원

△무료 입장=국가(독립)유공자, 만 13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른 등

▲문의=㈔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2-3091, 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국 732-

11. 9. 삼다일보 13

(제민일보: 2026년 11월 9일)

○ 출하량 증가・잦은 비에 감귤 값 '뚝' -1면

출하량 증가·잦은 비에 감귤 값 '뚝'

도, 감귤 가격 안정 긴급점검

도지사 가락시장 현장 소통

생산 예상량 전년대비 증가

품질 관리·선별 강화 제안

품종 갱신·묘목 보급 확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감귤 가격 안정을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선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문대림 국회의원이 유통 중인 제주감귤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출하 초기 호조세를 보였던 올해산 감귤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제주도가 감귤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 감귤 거래 동향을 점검하고 도매시장 관계자들에게 제주감귤의 적정 가격 형성과 소비 확대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노지감귤의 본격적인 출하에 맞춰, 주요 유통 거점인 가락시장에서 현장 의견을 듣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등에 따르면 올해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은 44만3300t으로 지난해 41만965t보다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극조생 감귤이 막 출하되던 지난 9월 제주산 감귤의 평균 가격은 1만2945원(5kg 기준)으로 전년도 1만685원보다 2260원(21.1%) 더 높은 가격을 보이는 등 호조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면서 11월 현재 평균 가격은 9277원을 기록, 같은 기간 2025년산 평균 가격인 1만1267원보다 1990원(17.6%) 낮고, 2024년산 평균 가격인 1만417원보다도 1140원(10.9%)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최근 감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올해산 감귤의 출하량이 늘어난데다 최근 잦은 비 날씨로 인해 최근 수확·유통된 감귤이 부패되는 등 상품성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농협가락공판장 경매사는 "10월 초 극조생 감귤의 거래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게 형성됐지만 하순에는 잦은 비와 높은 기온으로 부패가 발생하면서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들은 소비자의 재구매를 이끌어내려면 충분히 익은 과실을 수확하고 부패과를 철저히 선별하는 등 수확부터 보관·운송까지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위 지사는 기온 상승과 잦은 비로 인한 부패 문제에 대응해 극조생 감귤의 품종 갱신에 속도를 내고 내년부터 묘목 보급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지사는 "오늘 주신 말씀 잘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도매시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 함께한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도 "제주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자와 유통인이 뜻을 보아야 한다"며 "유통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할 부분을 제주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영 기자

11.9. 제민일보

(제민일보: 2026년 11월 9일)

○ “감귤 값 후려치기 막아야” -2면

“감귤 값 후려치기 막아야”

○…수확기 잦은 비날씨 등의 영향으로 올해 감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인들의 가격 후려치기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과거부터 감귤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농가들의 불안심리를 부추긴 후 크게 낮춘 가격으로 감귤을 매입하는 행태가 반복돼.

일각에서는 “감귤값 하락과 부패과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가격 후려치기는 감귤 상품성과 가격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행정당국의 적극 [illegible] 대응을 주문. 김두영 기자

11. 9.
제민일보 2

(제민일보: 2026년 11월 9일)

○ 제주산 마늘 간편식 전국 급식・외식 겨냥-6면

제주산 마늘 간편식 전국 급식·외식 겨냥

제주산 마늘을 활용한 가정간편식 3종이 개발돼 전국 단체급식과 외식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제미담은 가정간편식 시장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제주산 마늘을 활용한 간편식 3종의 개발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개발된 제품은 '제주마늘 숯불갈비맛제육' '제주마늘 순살닭볶음탕' '제주마늘 순살간장찜닭' 등이다.

이번 사업은 제주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부터 상품화와 판로 개척까지 지원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동원홈푸드가 전국 식자재 유통망과 식품 제조·개발 역량을 활용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

11.9.
제민일보 6

제주산 농산물을 활용한 소스류 2종도 추가 개발하고 있다.

동원홈푸드는 앞서 지난 3월 '제주마늘 살코기햄'을 출시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등 제주산 농산물의 상품화를 추진해 왔다.

도는 오는 13일 동원홈푸드 본사에서 간편식 3종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본사 직원 670명을 대상으로 시식을 진행하고 제품의 특성과 활용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동원홈푸드의 전국 유통망을 활용한 기업 간 거래(B2B) 시장 진출과 단체급식·외식업체 공급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신규제품 개발과 기존 제품의 상품화, 유통·판매 확대에 집중해 제주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할 방침이다.

김영호 기자

(한라일보: 2026년 11월 9일)

○ FTA기금으로 내년부터 스마트팜 지원-6면

FTA기금으로 내년부터 스마트팜 지원

제주시, 과수 시설 현대화 지원… 23일까지 접수
비가림하우스 지원한도·원지정비 품종 확대 추진

제주시가 내년부터 비가림하우스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첫 시행한다.

시는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2027년도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품질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다지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1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비가림하우스 ▷빗물이용시설 ▷원지정비(품종갱신, 성목이식)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관비시설 ▷방풍망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시설 ▷송풍팬시설 ▷농업용 재해예방용 난방기 ▷보온커튼 ▷노후하우스 개보수 ▷보급형 스마트팜 ▷재해예방용 차광막 해가림시설 등이다.

신청 자격은 출자출하조직인 지역 농·감협에 참여하는 농가다. 다만 농업 이외 종합소득 금액이 4700만원 이상인 경영체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필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 농가는 지역 농·감협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에 앞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각종 실적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 비가림하우스 지원 한도는 기존 2000㎡에서 3300㎡로, 원지정비 지원사업 대상 품종도 21개에서 22개로 확대된다.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이동익 시 감귤유통과장은 "이번 비가림하우스 지원 한도 확대는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생산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최근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들이 신청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9739농가에 3979억 9100만원을 지원했다. 세부적으로 기금 587억원, 지방비 814억4800만원, 융자 683억2100만원, 자부담 920억1200만원 등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11. 9.
한라일보 6

(한라일보: 2026년 11월 9일)

○ 감귤농협 이어 조천농협 노지감귤 수출 본격-12면

감귤농협 이어 조천농협 노지감귤 수출 본격

제주감귤농협에 이어 조천농협도 2026년산 노지감귤의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조천농협은 지난 5일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를 거친 노지감귤을 러시아와 캐나다에 각각 20t씩 총 40t 선적하며 올해 노지감귤 수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천농협은 이번 선적을 시작으로 2026년산 총 300t 수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현지 마케팅 및 유통망 확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조천농협은 러시아, 미주(미국·캐나다 등), 동남아시아 등 각 100t을 목표로 기존 거래처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천농협은 체계적으로 수출 농가를 관리해 엄격한 선별로 제주 감귤 특유의 신선도와 맛을 현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제주감귤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위영석기자

11. 9.
한라일보 12